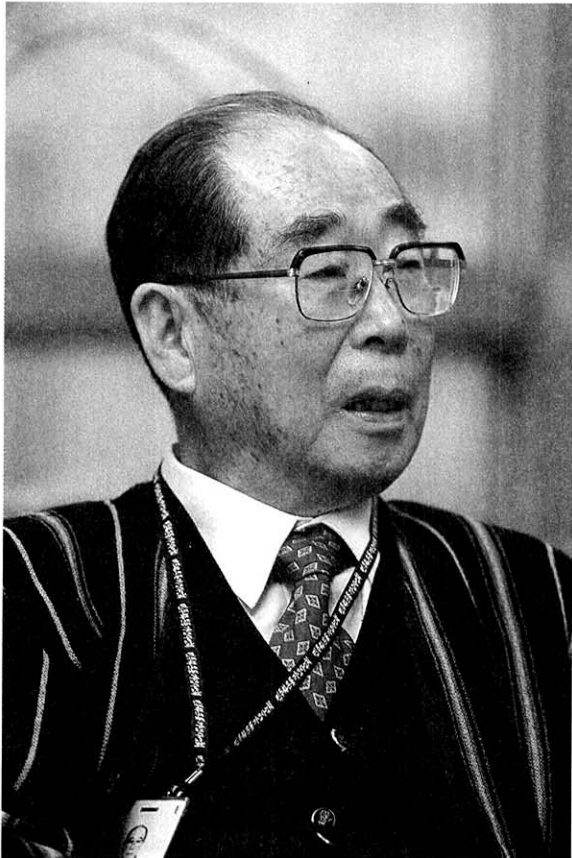




다사다난했던 2003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되돌아봄과 함께 새로운 전진을 위해 박형규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김종철 기자



### 2003년 한 해를 평가한다면?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어느 정도 사업 체계가 자리 잡아가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잡았던 계획들이 일정 수준 달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념사업의 존재와 그 의의에 대해 시민사회와 일반 국민들이 알게된 해라고 볼 수 있지요. 6월 난장을 통해서 많은 일반 국민들이 사업회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송두울 교수를 포함한 해외민주인사 초청사업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송두울 교수가 가져온 영향이 제일 크다고 하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지요.

한 해 동안 국회의 국정감사 두 번과 감사원 감사까지 3번의 감사를 받았는데 통상의 예에 비추어 보자면 아마도 사상 초유의 일일 것입니다. 시대와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일 일텐데, 우리는 이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회의 변증법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발전을 위해 겪어야 하는 진통의 과정으로 더욱 분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2003년 사업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송두울 교수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고 본래의 취지가 조금 왜곡되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만 해외민주인사 초청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용도 많이 알차졌구요. 6월 난장이나 전시회, 청소년 캠프 등도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해째에 걸쳐 사업을 이끌어오면서 사업회 구성원들의 경험과 진행 능력이 상당히 늘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점 또한 이같은 평가를 내리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송두울 교수 초청으로 인해 사업회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송교수를 생각하면 우선 마음이 아픕니다. 지켜보아야 하는 처지가 안타깝기도 하고요. 송교수 사건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현시점이 아직도 냉전 기류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었지요. 특히 우리 사업회사 사업회가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국민이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현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자면 이같은 시련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역사적 방향이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사업회의 역할이나 아울러 이를 실현해야 한다는 신념 또한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이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회가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은 한국 전체가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있는 시기입니다.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한반도 자체가 소용돌이에 빠져 있어 우리 또한 혼란의 와중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혼란중일수록 우리가 보다 분명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나아가면 사업회의 역할이 보다 분명해 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사업회 존립 목적을 승인하는 과정을 만들어간다면 이는 곧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를 범국민적으로 승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며, 또한 사업회가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업회의 공공성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위상,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업회로 보자면 목적 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인 만큼 새해에는 이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의 참여를 폭 넓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일을 추진하는 한편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사업회의 국민적 대표성을 넓혀가기 위한 과제 또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

현실적으로 예산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새해 사업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사업은 예산의 규모보다는 사업 자체의 의의를 충실하게 하는 것에서 그 활로를 찾아가야 합니다. 각각의 사업에서 이제까지의 경험을 살려 내실을 기해나간다면 어려움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정치적 외풍에 흔들림 없는 자

기 정체성 확보가 따라야 하겠지요. 사업으로 보자면 기념관 건립을 위한 준비가 새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필요한 내용과 기술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념관 건립이 국민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전제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을 차분히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희망세상 독자들과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주변에서 희망세상의 내용이 알차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상당한 보람을 느낍니다. 이같은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지요. 희망세상 독자들께서는 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인 만큼 이 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 건승하셔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소명이 민주와 평화, 그리고 통일 한국 미래를 열어 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여러분께도 더 많은 성원과 참여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